



## 생태적 회개와 성찬례 (2)

신앙생활에서 우리는 “친교”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. 이 말은 ‘일치’ ‘사귄’ ‘나눔’ ‘참여’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, 특히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. 성부, 성자,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지만 같은 한 분 하느님으로서 사랑 안에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‘완전한 친교’의 하느님으로 고백합니다. 또한 “친교”는 성찬례를 거행하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, 즉 교회를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. 성찬례에 모인 다양한 신자들은 한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그분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. 더 나아가 하느님 나라에서 그분과 누릴 영원한 친교를 미리 맛보고 그곳으로 초대됩니다. 이런 점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는 교회는 ‘친교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그렇다면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가 성찬례에서 누리는 이러한 친교에 어떻게 관련될까요? 앞서 다루었던, 우리가 성찬례에서 봉헌되는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를 넘어 모든 피조물과 자연세계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. 빵과 포도주가 나오기까지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, 재료인 밀과 포도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의 여러 존재가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되

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성찬례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봉헌물이며, 그것을 바칠 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,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달리 말하면 성찬례는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이 하느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초대되어 그분을 함께 찬미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일깨우는 자리인 것입니다. 이러한 의미에서 사제는 특별히 감사기도 제3양식과 제4양식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: “거룩하신 아버지,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”(감사기도 제3양식); “저희도 그들과[천사들과] 함께 하늘 아래 모든 조물과 더불어 기뻐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”(감사기도 제4양식).

성찬례를 거행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친교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, 즉 가정과 일터에서,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로, 더 나아가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.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친교의 공동체, 다시 말해 어느 한 편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, 완전한 친교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만들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찬례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생태적 소명을 다시 깨닫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지혜, 은총을 하느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. 🌱

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 
곶벤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

